

## 延平答問後跋\*

滉은 晦菴선생의 四書集註와 或問을 읽을 때 그 속의 기술된 師說의 한두 가지를 보고서 일찍이 그 辭義가 精深하고 旨味가 淵永함을 탄미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그 全書를 얻어 볼 수 없는 것이 한이었다.

壬子年에 서울에 와서 다행히도 박희정君과 알게 되어 이른바 答問錄이란 것 두 권을 그에게서 처음 얻었다. 병중에 그 책의 앞뒤를 살펴보니 마치 장님이 시력을 얻는 것 같고, 목마른 사람이 마실 것을 얻은 것과 같았다. 비록 그 내용의 범위는 쉽게 엿보지 못하겠지만, 吾學<sup>1)</sup>과 禪學은 동일한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이르러서 알 수 있고, 근본을 함양하는 데도 그 힘을 쓸 곳을 얻은 것 같다.

손수 答문록을 傳寫하면서 그 本錄의 錯簡을 교정하고, 誤字도 또한 참람되어 정리해서 희정에게 돌려보냈다. 그러나 지리하고 고달파서 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論語·春秋 등에 대한 講說條라는 글이 많으나 실행에 절실하지 않은 것은 그 조목만 열거하고 그 글은 전사하지 않았으며, 그 性理書 등의 책에 있는 글들은 무슨 책에 보인다고만 밝히고 혹은 注書에 집어넣기도 하고 혹은 上面에 뽑아내기도 하여서 책이 全書가 되지 못하였으니, 이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뿐이다.

이 答문록은 東方士子가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황이 희정에게 간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그 일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. 다행히 간행되어 선비로서 능히 존경할 줄 알아 탐구하고 服行하는 자가 많게 된다면, 斯道가 날로 외로워지고 異端이 날로 성해지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.

嘉靖 계축년 陽復日<sup>2)</sup>에 滉은 삼가 씀.

\* 퇴계학연구원, 「退溪學 譯註叢書」 제10권(1996)에서 발췌·수록한 것임

1) 吾學 : 여기서는 儒學을 가리킴.

2) 陽復日 : 冬至날을 가리킴.